

민주, ‘尹 인사·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연일 공세

이재명 “망언 인사 즉각 파면을”
“공천개입” 사실이면 탄핵 사유”
김민석 “특검 수용 외에 길 없어”
윤종균 “게이트 진상 반드시 규명”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망언을 일삼는 인사들을 즉각 파면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게 5·18 북한 개입설을 꺼냈다고 한

다. 미친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점기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극언을 했다”며 “내선일체를 말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이사는 ‘한국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는 취지로 (국감장에서) 말했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은 모르지만 국민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왜곡, 헌법정신 부정이 국민들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용납

할 수 없는 인사들을 파면하고 공식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대선 전후 (진행된) 명태군 씨의 무료 여론조사 대가로 국민의힘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공천 거러나 공천 개입을 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20대 대선 무효 사유도 될 수 있는 중대한 헌정질서 유린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여론 조작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조사 비용은 왜 정산하지 않았는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명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가로 제공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실 인적쇄신 카드로 김건희 특검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재발의할 예정인 ‘김건희 특검법’ 수용도 촉구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분노하는 국민의 최소한의 요구”라며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수용 외의 길은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군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긴밀히 소통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논평도 이어졌다.

윤종균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 “명씨에게서 ‘심상시’와 국정농단 사태 악명이 떠오른다”며 “폭로가 사실이

라면 윤 대통령 부부는 대선, 총선, 지선, 당내 경선, 국정을 농단해왔던 셈”이라고 밝혔다.

앞서 명씨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본인이 2021년 6월부터 6개월간 윤 대통령 부부와 거의 매일 빠짐 없이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사저에도 “셀 수 없이 갔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 그리고 이 일에 연루된 모든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과 위법을 낱알이 이실직고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명씨의 폭로로 일각이 드러난 게이트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영광군수 후보들, ‘한빛원전1·2호기’ 놓고 공방

장세일 “진보당, 폐로 입장 밝혀야”
이석하 “노동 중심 산업전환” 반박

10·16 영광군수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와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한빛원전1·2호기 폐로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장세일 후보와 영광군의원 8명은 14일 전남도의회에서 한빛원전 1·2호기 폐로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탈석탄·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합의하고 있는 기본적 방향”이라며 “진보당과 이석하 후보는 한빛 1·2호기 조기 폐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한빛 1·2호기 운영 허가 기간 종료에 맞춰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인가, 아니면 한빛 1·2호기는 탈핵과 핵발전소 조기 폐로라는 진보당의 정책에서 제외 대상인가”라며 “둘 다 아니면 진보당 중앙당은 운영을 중지하지는 입장이나, 이 후보는 이에 반대하는 쪽”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한빛 1·2호기는 각각 2025년, 2026년에 운영허가 기간이 끝난다. 진보당과 이 후보가 선거 때는 핵심쟁점을 피해 가다가 선거가 끝나면 탈핵과 핵발전소 조기 폐로 정책을 밀어붙일 생각이 아닌지 군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에 대해 유불리를 이유로 견해를 밝히지 않는다면 공



장세일



이석하

직 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매우 무책임한 형태다. 한빛원전 문제는 단계적 탈원전에 기반한 에너지전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석하 후보 측은 이날 반박문을 내고 “군민여론 호도는 장세일 후보가 하고 있다”며 “진보당 에너지전환 정책은 ‘노동중심 산업전환’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빛원전 계속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안정 및 군민의 안전과 단합’이다. 이에 수명연장 논의 4원칙(안정성·주민수용성·정보공개·노동자 고용보장)을 제시한 바 있다”며 “되레 ‘원자력 폐쇄는 지역 경제가 흔들린다’며 대책없는 폐쇄·폐로를 기정사실화 했던 건 장세일 후보다. 제1야당 후보가 원전 노동자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상대 후보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후보 이전에 영광사람으로서 즉시 사과해야 할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지현·정성현 기자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에 강은미 전 의원

정의당 광주시당은 전국 동시당직선거 결과 8기 광주시당위원장에 강은미(사진) 전 의원이 선출됐다고 14일 밝혔다.

당원 투표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강은미 후보는 시당위원장에 단독 출마해 98%의 찬성표를 얻었다. 강 신임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원내대표를 역임했고 5대 광주서구의원과 6대 광주시의원을 수행한 바 있다.

강 당선인은 “지난 4년 저를 포함해 정



강은미

의당 의원들이 정치 활동이 많이 부족했다.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절망스러운 민생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정의당, 시민의 신뢰와 지지로 다시 일어서는 정의당을 만들기 위해 당원들과 함께 지역과 현장에서 당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성현 기자



오동운 “공수처 존속돼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14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공수처가 존속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달라’는 질문에 손을 들고 있다.

뉴스

한동훈·친한계, 연일 ‘김건희 라인’ 정리 요구

친윤계 “얕팍한 정치공학” 반발
대통령실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당내 친한(친한동훈)계의 ‘김건희 라인(한남동 라인)’에 대한 인적쇄신을 요구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계에서 ‘얕팍한 정치공학’이라고 반발하고 나서는 등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인적쇄신 요구는 김 여사 라인을 뜻하는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나.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근들어 김 여사를 겨냥한 발언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날도 구체적으로 김 여사 라인에 대한 인적쇄신을 요구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0·16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한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민심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이후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염두에 두고 미리 포석을 깔아두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서 “과거 최서원씨의 경우에는 직책이 없이 비선에 서 역할을 해서 문제가 된 경우 아닌가. 이번에는 다 본인들 직책이 있지 않나”라며

“그 직책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윤계에선 반발하고 있다.

‘원조 친윤’으로 불리는 중진 권성동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까지 이런 얕팍한 정치공학은 여지없이 실패해 왔다.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모두 당장 갈등 때문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며 한 대표와 친한계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서 “과거 최서원씨의 경우에는 직책이 없이 비선에 서 역할을 해서 문제가 된 경우 아닌가. 이번에는 다 본인들 직책이 있지 않나”라며

서울=김선욱 기자

정준호 “광주, HUG분양보증사업장 미분양 급증”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사진)은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사업장 중 미분양 세대수가 최근 급증하면서, 지역 중소건설사의 자금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대규모 분양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에 따르면, 지난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미분양 세 대수는 대부분 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7월 말 미분양 사업장수는 605개로 8만4824세대에 달한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9년 미분양이 499세대에서 올해 7월말 현재 7091세대로 1321% 증가했다.



미분양 세대수의 폭발적 증가는 건설 자재비 상승, 고물가, 고유가 등의 요인과 맞물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의원은 “HUG가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분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중소건설사 보호 방안과 미분양 방지 대책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jni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